

# 서희 “발레흐름 잘 알때 도움주고 싶어요”



“유스아메리카 그랑프리 한국 마스터 클래스”는 제 은퇴 계획의 하나는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은퇴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현장에서 세계 발레 흐름을 가장 잘 알 때

### ABT 수석무용수... ‘발레 꿈나무’ 발굴 YAGP ‘한국 마스터 클래스’ 개최 화제 “학생들 덕분에 ‘발레사랑’ 새삼 깨달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요.”

영국 로열 발레단, 파리오페라발레단과 함께 세계 3대 발레단으로 통하는 미국의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ABT)의 수석무용수 서희(30·사진)가 한국 발레 꿈나무 발굴을 위해 나선다.

22~24일 서울 능동 유니버설아트센터 스튜디오에서 ‘유스아메리카 그랑프리 한국 마스터 클래스’를 연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발레 콩쿠르인 ‘유스 아메리카 그랑프리’(YAGP)의 첫 한국 예선이다.

국제적인 발레 유망주를 발굴해내는 대회로 유명하다. 그간 한국 학생들은 일본 등 해외로 나가서 예선에 참여해야 했다. 비디오 심사를 거쳐 지난날 82명의 마스터 클래스 참가자를 선발했다.

서희는 2003년 한국인 처음으로 YAGP 전체 그랑프리를 받으면서 주목 받았고, ABT 입단 기회도 잡았다. 13년 전 대회가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당시 느낀 감

정들, 떨렸던 것, 상을 받았을 때 기쁨, 상 받았다는 통보를 받은 뒤 바로 엄마에게 전화했던 것이 떠오른다”고 했다.

서희 이후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 수석 무용수이자 지난날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으로 통하는 2016 브누아 드 라 단스(Benois de la Danse)의 최고 남성무용수상을 받은 김기민이 2012년 그랑프리를 받았다. 올해 4월에는 영국 로열 발레 학교 재학생인 전준혁이 그랑프리를 차지했다.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졌어요. 저도 이 콩쿠르로 인해 더 많은 문이 열렸고요.”

서희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이름을 딴 자선기부단체 ‘서희재단’을 설립한 이후 YAGP 예선을 한국에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설치미술가 강익중 등과 함께 자신 경매 행사를 여는 등 후배 무용수들을 위해 기금을 마련해왔다. “재단 일은 처음 해야 하는 일이 대부분이라 어려웠어요. 법률, 세무적인 일은 신경써본 적이

없었죠. 법안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니 즐거웠죠.”

이번에 선발된 학생은 미국 ABT 부속 학교인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스쿨, 독일 베를린 국립발레학교 등에서 공부하게 된다. 학생 수는 정하지 않았다. “재능 있는 한국 학생들이 마음 놓고 꿈을 꾸고 싶어요. 그 방법을 몰라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이번 마스터 클래스를 오로지 학생들만을 위한 시간으로 꾸미는 이유다. 미디어 현장 취재도 받지 않기로 했다. “부모님, 선생님들은 오리엔테이션만 같이 참여해요. 학생들이 집중해서 배우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기자님들이 오시면 흥분도 도움이 되겠지만 학생들이 좀 더 집중하길 바랄게요. 외국에서 선생님들이 오셔서 영어로 진행하는데 외국 학교 분위기가 해외 콩쿠르를 실제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죠.”

발레를 하는 학생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어릴 적 제 모습이 떠오른다”고 미소지었다. “제가 얼마나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 했는지 떠오르죠. 그때는 성공에 대한 생각조차 없었어요. 순수하게 발레를 사랑했죠. 아이들 덕분에 제가 발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김민근 기자



## 찌고 튀고 차 만드는 기법 ‘제다’ 무형문화재 된다

‘제다(製茶)’가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제130호로 지정하는 제다는 차나무의 싹, 잎, 어린줄기 등으로 차를 만드는 기법이다. 찌거나 튀거나 발효 등을 거친 재료를 비비기, 찜기, 압착, 건조 등의 공정을 통해 마실 수 있는 차로 만드는 일련의 전통기술이다.

차에 관한 기록은 삼국시대부터 있다. 조선 후기 다산(茶山) 정약용과 다성(茶聖)으로 불리는 초의선사가 저술한 ‘동다송(東茶頌)’, ‘다신전(茶神傳)’ 등 다서(茶書)가 전해지는 등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다. 차 제조기술이 변화·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제다 기법이 오늘날에도 활발하게 전승돼 널리 통용된다. 차 만드는 과정과 마시는 방식 등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성과 표현미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

종목만 지정되고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되지 않는다. 차 산지가 경남 하동과 전남 보성·구례 등 남부의 광범위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차 제조 기술이 일반적으로 공유·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근 기자

## 우산장인 윤규상 ‘지(紙) 우산’ 전

### 한지산업지원센터 특별기획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는 2016년 특별기획전의 일환으로 ‘지(紙) 우산’ 전시를 연다.

이번 전시는 전통우산의 맥을 이어가는 전국 유일의 우산장인 윤규상(전북무형문화재 제45호)의 작품 전시로, 전통소재 한지와 전통 지우산 제작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작품의 지우산을 선보인다.

예로부터 전주에는 질 좋은 대나무가 많고 수질이 적당해 최적의 한지 생산지 장소로 각광 받았다. 이렇듯 질 좋은 한지의 용이한 수급과 문화정서적 흐름으로 지우산 수요가 급증했으나, 1970년대 값싼 비닐의 보급과 근대 천으로 된 자동우산의 출현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며 지우산은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이렇듯 특수한 재질의 등장으로 인해 지우산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듯 했으나, 최근 윤규상 장인이 실용성과 심미성을 겸비한 지우산을 제작하며 대중에게 우리 전통공예의 멋을 선보이고 있다.

지우산에 사용된 한지는 기름을 먹여 일반 종이와 다르게 잘 찢어지지 않고 가죽만큼 튼튼하고 견고하다. 또한 지우산은 바람이 불어도 대나무 살대가 견고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뒤집어지는 일도 없다.

윤규상 장인이 일흔이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우산을 손에서 놓지 못한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한 일에 대한 열정 때문이다. 한평생 수도 없이 대나무에 손을 베고 쪼려가며 기술을 연마했다고 밝힌 윤 장인은 “지우산은 누군가는 지켜내야 할,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서가 녹아있는 물건”이라고 말했다.

전시는 8월 7일까지 열리며, 오프닝 식은 20일 오후 4시 한지산업지원센터 2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지산업지원센터 디자인개발실 281-1555로 문의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30일 아마추어 e스포츠 도내대표 선발전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제8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전북지역 대표 선발전’을 갖는다.

오는 30일 전주 정주PC방에서 열리는 선발전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 카트라이더, 하스스톤 등 3개 종목의 게임이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e스포츠 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북지역 아마추어 선수 9명을 선발하며, 총 1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지역대표선발전을 거쳐 선발된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대표들이 참가하는 KeG대회 전국 결선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서울 상암동 e스포트스 전용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최종우승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정해은 기자

## 김제지평선고, 전국연극제 전북대표로 출전

김제지평선고등학교의 ‘모든 학생은 불쌍하다’가 제20회 전북청소년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 오는 8월9일 동송아트센터 폭포수극장에서 열리는 전국연극제에 전북대표로 출전한다.

수상 작품은 ‘모든 학생은 불쌍하다’는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는 작품을 아파시 오나토가 각색한 것으로 총3개의 이야기로 구성된다. 작품은 가출청소년, 학도병, 세월호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학교에

서 일어나는 무관심과 억압, 교육의 폐해 등을 표현한다.

김제지평선고등학교 아파시오나토는 ‘모든 학생은 불쌍하다’의 작품을 통해, 학생을 위한다는 게 진정한 무엇인지에 다시금 생각해 보길 바라며 이를 무대에 올렸다. 제20회 전국청소년연극제는 8월 2~13일 동송아트센터와 동송수극장에서 열리게 된다.

/정해은 기자

##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부모선택제로

정부가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게임문화 진흥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이준식 사회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 진흥계획’(2016년~2020년)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완화다.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심야 시간대인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금지하는 정책으로 강제성이 있다.

정부는 부모의 요청이 있으면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개선하게 했다. 부모선택제는 심야시간(0시~6시)대에 친권자 등이 요청하면 청소년의 게임을 허락하게 하는 제도다. 이밖에 정부는 인디게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규 콘텐츠 개발과 유통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형 게임기업과 중소 게임기업, 인디 게임 개발자가 상생하는 생태계 지원도 강화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게임문화 진흥계획 수립을 계기로 선순환 게임문화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게임업계는 이번 정책이 본질적인 해결안이 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게임에 대한 정부의 냉소적 기조가 여전하고, 셧다운제 완화는 셧다운을 해제하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한계도 있다. 또 이번 정책이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 인기에 편승한 측면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민근 기자

호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7월 20일)

<p><b>▷쥐띠</b> 46년생: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할 일이 생기니 주의하라. 60년생: 구설수가 따르니 말과 행동에 주의를 요하는 운이다. 72년생: 혼자 판단하여 행동하는 일은 삼가라. 84년생: 다른 사람의 입장과 비켜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운이다.</p>	<p><b>▷소띠</b> 49년생: 신중하게 고민하고 처신하는 것이 좋겠다. 61년생: 새로운 방식에 대해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때. 73년생: 머물러 있는 것보다 변화를 주는 것이 좋은 운이다. 85년생: 지나치게 이상적인 것에 치중하는 것보다 감성적인 부분을 곁들여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운.</p>	<p><b>▷호랑이띠</b> 50년생: 늦게 움직이면 농치게 되니 매사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 62년생: 큰 그림을 그리고 하나씩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 74년생: 정신적, 육체적 소모가 심한 운. 86년생: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삼가라.</p>	<p><b>▷토끼띠</b> 51년생: 지나친 욕심은 실망만 가져오게 되니 마음을 비우고 때를 기다려라. 6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경쟁자가 나타난다. 75년생: 계획을 변경하지만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87년생: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좋은 때가 아니다.</p>
<p><b>▷용띠</b> 52년생: 하고자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다. 64년생: 주위 사람 앞에 귀 기울이면 말속에 답이 있다. 76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 88년생: 편법을 쓰게 되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없으니 정도를 지키며 나아가라.</p>	<p><b>▷뱀띠</b> 53년생: 미루지 말고 행동하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 65년생: 타인에게 베풀면 더욱 돌아오는 운이다. 77년생: 처음에는 힘드나 이겨내면 노고에 대한 보답이 있는 운이다. 89년생: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하는 운이다.</p>	<p><b>▷말띠</b> 54년생: 때를 기다리며 내실을 다져라. 66년생: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를 얻어라. 78년생: 사별로 인해 힘든 일이 발생하니 사물을 골라 상대해야 할 것이다. 90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니 마음을 비우고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p>	<p><b>▷양띠</b> 55년생: 기존의 것에 기대해봤자 결실을 맺지 못하니 변화를 가져라. 67년생: 작은 일에 더 신경써라. 79년생: 의무로 확장해보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한 운이다. 91년생: 금전관리에 주의하고 중요한 물건은 가지고 다니지 마라.</p>
<p><b>▷원숭이띠</b> 56년생: 뜻밖의 귀인으로 인해 좋은 결실을 맺으며 행운이 따르는 운이다. 68년생: 지나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80년생: 대인관계에 신경을 쓰면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운이다. 9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능력을 인정받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운이다.</p>	<p><b>▷닭띠</b> 57년생: 금전거래는 삼가라. 69년생: 이성이나 친구 사이에 삼각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81년생: 순간의 감정으로 움직이면 후회할 일이 생기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라. 93년생: 원행은 삼가고 일찍 귀가하는 것이 틀이 없겠다.</p>	<p><b>▷개띠</b> 46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실이 있다. 58년생: 사람들과의 모임도 깊고 금전운도 좋은 운. 70년생: 외부적으로 구설, 시비, 실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82년생: 처음에 손해를 보면 후에 얻게 되니 긍정적 마인드가 필요하다.</p>	<p><b>▷돼지띠</b> 47년생: 사소한 일에도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운이니 마음을 편안히 가져라. 59년생: 과음, 과식은 삼가라. 71년생: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운이다. 83년생: 급하게 결정을 내리면 불리하니 차분하게 생각하라.</p>